

4월의 사양관리

— 축산연구소 —

일반 사양관리

별써 2004년의 1/4분기가 지났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목표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이다. 4월에는 특히 황사 등으로 인해 가축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마을 단위로 공동방역 계획을 수립·점검해 보고 매주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이웃과 공동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이 다시 이 땅에서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사료원료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조사료 역시 수입쿼터 제한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금년에는 자급 조사료 생산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유희 농경지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한다. 시기적으로 청예사료를 확보하여 급여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주변의 청초를 수확하여 이용하되 청예사료를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로 설사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7~10일간에 걸쳐 급여량을 서서히 증대시키며 사료 변경시 MUN(우유중 요소태 질소합량) 테스트를 실시하고 사료급여량을 변경한다.

사양관리

인연한 봄 기운으로 기온상승과 일조량의 증가로 인하여 발정과 수태 및 분만이 많이 이루어지는 번식계절이다. 통계적으로 4~5월경에 발정이 제일 많고 수태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번식에 유의하고 기록부에 번식 상황을 꼭 기록한다. 또한 우사 특히 분만실의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개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해 주고, 분만실은 깨끗한 깔짚을 깔아주어 생산된 송아지와 분만한 어미소가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태어난 송아지는 생후 1~2주 사이에 전기제각기나 약품을 사용하여 제각을 실시한다. 젖소능력검정사업 참여 등으로 개량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사양관리 노력의 결과, 고능력우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농가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목장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유사비(유대 중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를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고능력우 사양관리를 통해 사료섭취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산유량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 사양관리 보다는 적정 산유량과 번식에 초점을 맞춘 적정 영양관리가 더 중요하다. 주변의 여러 가지 값싼 농산부산물이나 식품제조업체로부터 나오는 식품가공부산물을 이용하여 조사료 대체효과 및 생산비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만이 많은 시기이므로 분만전·후 사양관리가 중요하다. 전환기 동안에 사료 섭취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대사성 질병을 줄이는 핵심기술이다. 임신우의 BCS(신체충실지수)가 3.7이상으로 과비한 경우 분만후에 식욕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체중의 1.5%를 사료섭취하지만 신체충실지수가 3.2~3.6로 적정 신체충실지수(BCS)를 유지한 경우에는 사료섭취량이 체중의 약 2.0%까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분만전 적정 BCS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분만전·후 젖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요 대사성 질병의 경제적 손실로서 유열은 두당 약 45만원, 제4위 전위증 44만원, 후산정체 35만원 및 케토시스 19만원 정도이지만 이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번식률 저하, 우유 품질 저하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손실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분만전·후 사양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분만후 비유초기 산유량에 증가에 따라 부족되는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하여 체중감소로 인한 번식장애 및 케토시스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그러나 비유초기에 부족한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후사료 위주로 다량 급여할 경우 반추위내 산도 하락으로 산독증 등 다른 질병이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적절한 조:농비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TMR 급여농가의 경우 외부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사조를 깨끗이 청소하여 사료의 기호성을 잃지 않도록 해 준다.

방역 및 위생관리

양 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원유의 품질관리에서 체세포수 등급은 선진낙농국에 비해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생물을 제거하고 젖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면역세포 즉 백혈구를 합한 것으로 건강한 유선으로부터 생산된 원유 1ml 당 체세포는 10만 이하로 보고 있다. 체세포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계절별, 시료채취 시간별, 비유 단계별, 스트레스, 유전적 영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체세포수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체세포는 미생물이나 유방염 등의 감염에 따라 그 수가 갑작스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체세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잘 파악 대체하여 체세포수 증가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질의 우유 생산을 위한 수칙으로는 첫째, 착유전에 착유기의 압력과 맥동수를 항상 점검한다. 둘째, 유두세척 타올은 반드시 한 마리당 하나 이상을 사용한다. 세째, 유두세척을 실시한 후 마른 타올로 건조시킨 다음 1분 이내에 착유기를 부착한다. 넷째, 착유기 제거 후 즉시 유두침자를 반드시 해준다. 다섯째, 착유한 원유는 빠른 시간내에 냉장시킨다. 여섯째, 위생관리를 위해 유방주위의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준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CMT나 체세포수 검사를 한다. 여덟째, 비타민 E, 베타케로틴 등을 정기적으로 급여한다. 아홉째, 유두 침지액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초지 및 사료작물 관리와 농기계 정비

▲ 입 조사료 의존 일변도에서 이제는 자급 조사를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는 사양체계로 과감한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수한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파용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 소요량을 신청 접수받고 있다.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옥수수 파종의 경우, 중부지방은 4월 15일~20일, 남부지방은 4월 5일~10일 파종적기이다.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퇴비(ha당 50M/T)와 인산질비료(ha당 200kg)의 사용이 필요하다. 옥수수는 고온작물이므로 생육초기의 저온 상태시 생육이 늦어지고 잡초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제초제를 파종 후 3일 이내에 골고루 살포하며 추후 필요시마다 제초한다. 봄 연맥 및 유채를 4월 상순까지는 ha당 유채 15kg, 연맥120kg을 파종한다. ☺